

재현과 논설

— 염상섭 소설의 사실주의적 서술방식의 형성과정 —

강 헌 국*

요약

염상섭은 초기 삼부작에서 작중 자아의 주관적 심경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고백체를 실천했다. 그러나 『만세전』을 계기로 그의 소설적 관심은 객관 쪽으로 선회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초기 삼부작과 『만세전』 사이에 나타난 변화를 단절이나 단층으로 규정하였다. 본 논문은 그 지점에 주목하여 『만세전』과 초기 삼부작을 연결하는 계기들을 설명하였다.

초기 삼부작 이후 형성된 염상섭의 사실주의적 서술은 사실과 의미에 걸쳐 객관성을 추구하였다. 사실은 충실하게 재현되었고 의미는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다. 사실과 의미 중에서는 전자가 중시되었다. 그 어떤 신념이나 가치도 사실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이 염상섭이 사실주의자로서 견지한 태도였다. 그로서는 모종의 의미를 위해 사실을 조종하거나 변형하는 작용은 용납되지 않았다. 논설적인 서술로 형성된 의미가 그 자체로 보편성을 지니더라도 대개의 경우 작중 현실에서 상대화되었다. 보편적인 이념이나 윤리의 실현이 불가능할 만큼 객관 현실은 비정하고 냉혹했다.

본질적인 가치를 유보할 만큼 염상섭은 사실 앞에서 겸허하려 했다.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현실을 충실히 재현하고자 한 탓에 그는 정치적으로 특정 입장을 고수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그의 정치적 입장이 선명하게 규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 논설, 『만세전』, 염상섭, 재현, 『제야』, 『표본실의 청개구리』, 『해바라기』, 『E선생』

목
차

1. 서론
2. 고백체와 현실인식
3. 재현적 서술
4. 논설적 서술
5. 결론

1. 서론

주관과 객관이라는 상반된 지향은 염상섭이 소설 창작을 개시하기 전부터 그의 문학적 사유 속에 양립하고 있었다. 『개성과 예술』에서 주관 지향은 ‘자아 각성’으로, 객관 지향은 ‘현실 폭로’로 표명되었다.¹⁾ 그 둘 중 주관이 먼저 서사로 전개된다. 그 선택에는 염상섭이 김동인과 벌인 논쟁, 그리고 그 논쟁에 의해 호출된 고백체가 관련된다. 김환의 『자연의 자각』이 빌미가 되어 촉발된 두 사람의 논쟁은 염상섭이 소설을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일단락된다.²⁾ 김동인은 염상섭이 ‘소설 작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서 비평가 행세를 한다고 비난했다. 염상섭은 직접 소설을 씀으로써 자

1) 서영채는 『개성과 예술』을 심도 있게 분석한 바 있다. 그는 그 글이 리얼리즘과 낭만주의라는 서로 대척적인 두 논리축의 습합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리얼리즘은 객관 지향을, 낭만주의는 주관 지향을 각각 내포한다.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137-142면

2) 이 논쟁의 상세한 경과는 김윤식에 의해 고찰된 바 있다.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113-123면.

신이 김동인의 논쟁 상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했다. 『창조』를 창간했고 『약한 자의 슬픔』을 쓴 김동인에 필적할 만한 존재로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염상섭이 써야 할 작품의 수준은 분명했다. 김동인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했다. 고백체는 그러한 수준을 가늠케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었다. 김동인이 근대소설의 선구자로 자처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고백체를 시도한 사실이 관련된다. 신문학 초창기 근대소설이란 곧 고백체를 의미했고 김동인이 말한 ‘소설 작법’이란 고백체를 지칭했다. 염상섭은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통해 고백체를 선보임으로써 김동인이 제기한 자격 시비를 불식시켰다. 염상섭의 문학적 사유 속에서 양립하던 주관 지향과 객관 지향 중 전자는 구체적으로 고백체였고 그 고백체가 김동인과의 논쟁에 의해 객관 지향보다 먼저 서사로 실현된 것이다.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 『암야』와 『제야』로 이어지는 이른바 초기 삼부작을 통해 염상섭은 작중 자아로 하여금 주관적 심경을 토로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백체를 실천했다. 그러나 초기 삼부작 이후 그의 소설 창작은 주관성을 천착하는 방향으로 지속되지 않았다. 『만세전』을 계기로 그의 소설적 관심은 객관 쪽으로 선회한다. 그의 문학적 사유에 애초부터 잠재했던 객관 지향이 본격적으로 서사화 되기 시작한 것이다.

『만세전』 이후 염상섭의 소설에서 초기 삼부작과 같은 경향의 작품은 찾기 어렵다. 선행 연구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단절이나 단층으로 파악한다. “염상섭의 『만세전』은 초기 3부작과 구별되는 이정표의 구실을 하고 있는 셈³⁾”이라거나 “초기의 혼란을 청산하고 …(중략)…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한 작품이 『만세전』⁴⁾”이었다고 한다. 선행 연구는 초기 삼부작과 『만세전』 사이에 나타난 현격한 차이를

3) 같은 책, 194면.

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제 2판, 지식산업사, 1989, 135면.

사후적 사실 확인의 수준에서 언급할 뿐 그 경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고찰이 요구되는 사태를 간과했던 셈이다. 작가론은 문학사 연구의 일환이고 사적 연구는 변화의 과정과 의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본 논문은 선행 연구가 피상적으로 처리한 지점에 주목하여 초기 삼부작과 『만세전』을 잇는 내적 계기들을 명시하고 그 계기들에 내포된 객관 지향이 『만세전』 이후 소설의 사실주의적 서술 방식으로 연장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염상섭의 사실주의적 서술 방식의 형성과 관련하여 본 논문이 주목하는 시기는 『만세전』 이후부터 염상섭의 재도입 직전까지이다.⁵⁾ 이 시기에 해당되는 작품들 중에 『해바라기』와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에 대한 작품론적인 성격의 논의들이 적지 않게 누적되었다.⁶⁾ 그러나 염상섭 소설의 전개라는 전체 맥락에서 그 시기의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고찰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본 논문은 염상섭 소설의

5) 김경수가 작성한 염상섭 소설 연보에서 이 시기에 해당되는 작품은 『E선생』에서 『윤전기』까지 총 11편이다. 김경수, 『염상섭과 현대소설의 형성』, 일조각, 2008, 267면.

6) 『해바라기』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최영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최영희에 대한 심리묘사가 높게 평가되었고 신여성의 연애관이 거론되는가 하면, 나혜석이 관련된 모델소설이라는 관점이 전제되기도 하였다. 관련된 연구로는 김윤식, 앞의 책; 서영채, 앞의 책; 김지영, 『연애의 형성과 초기 근대소설』, 『현대소설연구』 27, 2005.9; 이덕화, 『염상섭의 향기로운 추억의 여인, 나혜석』, 『나혜석연구』 7, 나혜석학회, 2015.12. 등이 있다.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에 관한 논의는 주로 그 작품에 나타난 연애 풍속과 세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당대의 연애 풍속에 대한 작가의 주제의식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가 하면 신여성에 대한 작가의 편향된 인식이 비판되기도 하였다. 작중에 나타난 독서체험이 주목되었고 그 작품이 모델소설로서 창작되는 과정이 검토되었다. 관련된 연구로 유양선, 『근대지향성의 문제와 현실뒤집기의 수법』, 권영민 편, 『염상섭 문학연구』, 민음사, 1987; 김경수, 『근대의 독서체험과 초기소설의 구조-『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7. 8; 장두영, 『염상섭의 모델소설 창작방법 연구-『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4, 한국현대문학학회, 2011.8. 등이 있다.

사실주의적 서술 방식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이 그 시기의 작품들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써 염상섭 소설의 전개에서 그 작품들이 지닌 가치와 의의를 새로이 조명하고자 한다.

2. 고백체와 현실인식

염상섭의 문필 활동 초기에 나타난 주관 지향이 당대 일본 문단의 동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이 고백체를 통해 드러난다. 교토 부립 제 2중학교에 다녔던 염상섭은 뛰어난 일본어 구사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글을 제일 잘 알았다는 것은 곧 일본 근대문학의 깊은 곳을 제일 잘 알았다는 뜻”⁷⁾이기도 하다. 그에게 근대소설이란 곧 일본의 근대소설이었고 고백체는 그 근대소설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는 『암야』에서 일본어의 3인칭 대명사 ‘皮’를 그대로 썼고 아리시마 다케오의 소설을 언급했다. 한편 그의 문학적 사유에서 주관 지향과 양립했던 객관 지향은 식민지 현실에서 비롯한다. 그가 재 오사카 조선노동자 대표를 자임하고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며 그 일로 옥고를 치렀다는 사실은 그의 첨예한 현실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식민지 현실에 대한 자각과 분노는 그가 지식 청년으로서 가져야 했던 의무이자 자존감이었다.

일본 근대소설의 동향과 식민지 조선의 현실은 염상섭의 문학적 사유에서 주관 지향과 객관 지향이 공존하도록 했다. 그 중 전자가 먼저 서사로 발현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후자가 그의 소설 창작을 주도했다. 『만세진』을 기점으로 그의 소설적 관심은 주관보다는 객관으로, 개인의 내면보다는 당대 현실을 향했다. 작가로서 그의 성향

7) 김윤식, 앞의 책, 30면.

이 객관 지향이었음이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그의 사실주의 소설들이 입증한다. 그가 고백체를 의욕적으로 시도하던 중에도 객관 지향적 성향이 은밀히 작용했다.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는 김창역의 일화들을 통해, 『암야』에서는 광화문통을 당당히 걸어 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당대 현실이 암시된다.⁸⁾ 『제야』에서 최정인은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서술을 진행한다. 편지는 고백체의 구사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되지만 서술자를 주관성에 매몰시킬 위험이 있다. 김동인의 『마음이 열린 자여』가 그런 위험을 피하지 못한 경우이다. 『제야』의 최정인은 자신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충실히 재현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개진함으로써 객관을 지향한다. 그녀는 신념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수사으로써 감정을 과장하지도 않는다. 신념보다 사실을 우선시하고 논리로 감정을 절제함으로써 그녀의 서술은 주관성에서 벗어난다.

초기 삼부작에서 염상섭은 고백체를 시도하면서 암암리에 고백체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 움직임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만세전』의 사실주의가 갑작스러운 변화로 파악되고 초기 삼부작과 『만세전』 사이를 단층으로 처리하게 된다. 선행연구는 대체로 그런 식의 피상적인 이해에 그쳤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것처럼 『만세전』을 부른 동인들이 이전 단계의 작품들에 잠재해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염상섭의 문학적 사유 속에 사실주의적 성향이 내재해 있었다. 그러한 동인과 성향이 잘 포착되지 않는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국한된 이해에 그친다면 염상섭 초기 소설의 전개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만세전』은 초기 삼부작과 결별

8) 이보영은 『암야』에 내포된 시대적 의미를 매우 적극적으로 읽어냈다. 그는 그 작품의 결말에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을 두고 “일제에 의하여 강요된 한민족이 예측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저항으로 발전될 것을 예시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림기획, 2001, 68면.

한 경우가 아니라 그 삼부작에 잠재해 있던 동인과 성향이 집약되어 선명하게 드러난 경우이다.⁹⁾ 초기 삼부작에서 객관 지향이 읽힌다면 그와 반대로 『만세전』에서는 주관 지향이 읽힌다. 『만세전』의 도입부에서 이인화는 물질이 지배하는 시류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세속의 낙오자를 자처하는 모습은 『암야』에서 진정한 예술을 여망하는 ‘나’와 공명한다. 그들의 사색과 자기반성이 관념의 수준에 머무는 모습도 유사하다. 『만세전』은 구성과 서술의 면에서도 초기 삼부작의 연장으로 파악된다. 『만세전』은 동경에서 경성으로 향하는 이인화의 행로를 따라 전개되는데 그런 식의 여로형 구성은 이미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 사용된 바 있다. 『제야』의 전문이 서간체로 서술된다는 사실과 『만세전』에 삽입된 편지들 간의 관계도 주목되어야 한다.¹⁰⁾

초기 삼부작과 『만세전』은 구성과 서술, 주인공의 태도 면에서 밀접하게 관련된다. 다만 『만세전』은 주관에서 벗어나 객관 현실로 진행함으로써 초기 삼부작과 차별화된다. 『만세전』은 『표본실의 청개구리』와 마찬가지로 여로형 구성을 취하지만 그 의미와 귀추에 있어서 양자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 ‘나’의 여행은 처음부터 어떤 용무와 목적지를 전제하지 않는다. ‘나’는 평양을 거쳐 남포로 가고 거기서 친구들의 소개로 김창억을 만난다. 그

9) 신중곤은 근대주체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초기 삼부작과 『만세전』을 고찰하였다. 그는 염상섭이 자기반성적 서술을 통해 주관적 내면에서 객관적 현실로 진행하였다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신중곤이 주목한 부분뿐 아니라 다른 여러 면에서 초기 삼부작과 『만세전』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이 본 논문이 파악한 바이다. 신중곤, 『염상섭 초기작에 나타난 자기반성적 서술형식 연구-『표본실의 청개구리』, 『암야』, 『제야』, 『만세전』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7, 상허학회, 2001.8.

10) 초기 삼부작과 『만세전』의 관련성에 대한 이하 두 문단의 서술은 논자의 『개념의 서사화-염상섭의 초기소설』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강현국, 『개념의 서사화-염상섭의 초기소설』,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2006.9. 407-430면.

러나 '나'가 김창역을 만나려고 평양까지 갔다고 보기 어렵다. 김창역을 제외한 작중인물들의 신분이나 직업은 작중에 명시되지 않으며 어떤 이유로 그들이 만나서 술을 마시는지 알 길 없다. '나'의 여행이 어떤 구체적인 용무나 의도 없이 권태와 우울 같은 기분이 발로가 되어 우발적으로 시작되고 그 이후로도 기분에 의해 진행된다. 기분에 따른 여행은 정처나 방향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 여행이 맺는 곳이 목적지이고 다시 여행이 개시되면 그 목적지는 경유지로 바뀐다. '나'의 여행을 통해 드러나는 바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 내면이다. 노변의 경물이나 인사도 '나'의 주관적 내면을 표상하기 위해 사용된다. 『만세전』은 『표본실의 청개구리』와 달리 용무와 목적지가 분명한 여로로 구성된다. 이인화는 유학생 신분이며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서 경성을 향해 출발한다. 동경에서 경성에 이르는 여정을 통해 그는 식민지 현실에 노출된다. 그는 시모노세키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연락선의 욕탕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인 노동자를 멸시하는 대화를 듣는다. 부산과 김천은 일본화 되어 있었고 김천 형님은 일본인들 덕분에 집값 시세가 올랐다고 좋아한다. 자정이 넘은 시각 대전역에서 열차가 정거한 동안 그는 호송대기 중인 죄수들을 본다. 두 손이 결박된 채 추위에 떨고 있는 죄수들의 모습에 그는 분노하고 “공동묘지다!”라고 속으로 절규한다. 여행을 통해 그는 식민지 현실을 공동묘지로 인식하기에 이른 것이다.

『표본실의 청개구리』의 '나'에게 여행은 주관적 정서를 반추하는 과정인데 비해 『만세전』에서 이인화는 여행을 통해 주관적 내면에서 벗어나 객관 현실을 대면하게 된다.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이인화의 인식은 여행의 처음과 끝 사이에서 현저하게 변한다. 같은 여로형 구성이되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기분의 여로에 그친다면 『만세전』은 인식의 여로로 진전된다. 이인화의 인식이 심화되는 과정에는

『암야』의 자기반성이 매개된다. 『암야』에서 ‘나’의 자기반성은 주관적 독백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만세전』에서는 구체적 현실을 소재로 이인화의 자기반성이 이루어진다. 그 자기반성이 이인화로 하여금 식민지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갖도록 하면서 노상에서 부딪히는 현실을 관찰하고 분석하게 한다. 여로형 구성에 자기반성이 결합하여 인식의 여로를 빚어낸 것이다. 『제야』에서 시도된 서간체가 『만세전』에서 거둔 효과도 주목되어야 한다. 『만세전』에는 네 통의 편지가 삽입되어 있는데 그 중 두 통은 직접 인용되고 나머지 두 통은 요약되어 간접 인용된다. 『제야』처럼 소설 본문 전체가 한 통의 편지로 이루어진 경우 화자의 정서와 사유에 국한된 서술이 이루어지지만 『만세전』처럼 복수의 편지가 본문의 일부를 이룰 경우 통상 액자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서술수준의 중층화가 나타난다. 『만세전』의 화자는 이인화이지만 본문에 삽입된 두 통의 편지에 의해 정자도 하위의 서술수준에서 화자로서 기능한다. 정자에게 쓴 이인화의 편지도 작중에 인용되므로 그는 하위 서술수준에서도 화자 역을 맡는다. 복수화자와 중층의 서술수준은 작중인물의 주관을 대상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제야』에서 최정인의 주장과 논의는 일방적으로 전개되는 반면 『만세전』에서 정자가 편지에서 하는 진술은 다른 서술수준과 긴장관계에 위치한다. 이인화가 정자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녀의 사고와 태도를 분석하고 그 나름의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 작품의 결말부에 그 전문이 게재된 편지는 화자가 두 개의 서술수준으로 분화된 경우에 해당된다. 이인화는 편지를 게재한 작중화자이면서 게재된 편지의 화자이기도 하다. 동일한 화자가 편지의 안팎에 위치한다면 편지에 한정된 화자보다 편지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화자가 편지의 외부에서 자신 쓴 편지의 내용을 지원하고 보강하는 서술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인화가 편지에서 정자에게 한 고백은 편지 외부에서 이미 전개된 그의 언행과 사유에 힘입어 그의 진

심으로 읽히게 된다. 그런 효과는 전문이 편지로 이루어진 『제야』에 서는 기대할 수 없다. 최정인의 자살 결심은 한 개인의 주관적 토로에 그쳐서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정자의 편지든 이인화 자신의 편지든 『만세전』에서 편지들은 하위의 서술수준을 형성하여 작품이 사실성을 획득하는 데 이바지하다.

『만세전』은 초기 삼부작과 결별한 경우가 아니라 초기 삼부작에 내포되어 있던 가능태들이 실현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본실의 청개구리』의 여로형 구성과 『암야』의 자기반성과 『제야』의 서간체가 객관지향으로 연장하여 결집한 결과가 『만세전』이다.

3. 재현적 서술

염상섭의 소설적 관심이 주관에서 객관으로 전이하는 과정이 『만세전』을 통해 생생하게 파악된다. 내면을 주시하던 시선이 외부로 선회하자 고백체는 효력을 상실하여 용도 폐기된다. 이제 그의 소설 창작에서 객관 현실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 된다. 객관 현실을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염상섭의 사실주의는 형성된다. 『해바라기』에서 그 향방이 가늠된다.

『해바라기』가 염상섭 소설의 전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그 작품이 『제야』에 비교될 때 분명해진다. 신여성의 사랑과 결혼을 소재로 삼았다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두 작품은 마치 음화와 양화처럼 대조된다. 그 대조는 제목에서부터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제야』가 밤과 어둠을 의미하는데 반해 『해바라기』는 낮과 밝음을 의미한다. 것처럼 제목에 함의된 대조를 단지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까닭은 서술의 태도나 방식에서 두 작품이 상반된 지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제

야』의 서술이 “유서 형식이 지니고 있는 압도적인 주관주의 위력”¹¹⁾에 주도된다면 『해바라기』의 서술은 객관적 시각에서 경험 현실을 재현한다. 서술의 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두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반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제야』의 분위기가 시종 비장하고 절연한데 비해 『해바라기』는 “전체가 명랑한 활기로 감싸여 있다.”¹²⁾ 최영희가 옛 애인의 무덤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묘비를 세우고 추모제를 지내는 일련의 과정은 그 내용만큼 비애를 자아내지 못한다. 서술자가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서술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만약 서술자가 최영희에게 동화되거나 최영희 자신이 서술자가 된다면 『해바라기』는 『제야』의 계열에 포섭된다. 옛 애인의 추모제를 지내러 가는 여인의 내면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즐거울 수 없을 것이다.

『해바라기』와 『제야』는 모두 신여성이 현실적인 타협으로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한다는 설정에서 서사를 전개시킨다. 여주인공들은 결혼 전에 다른 연애 상대가 있었다. 최정인은 E와 결혼하려 했고 최영희는 홍수삼과 미래를 약속했다. 결혼할 남자 쪽이 직장인이어서 경제적으로 유복하지만 이혼남이라는 점, 남자가 재취라는 자신의 불리한 처지 때문에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인다는 점, 결혼한 이후 남자가 아내의 과거에 대해 매우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는 점 등에서 두 작품은 유사하다. 다만 『해바라기』는 신혼여행으로 끝나는 데 비해 『제야』는 결혼 후 5개월여가 되는 시점까지 진행된다는 점에서 두 작품의 서사가 점유하는 시간의 폭이 다르다. 기본적인 설정에서 공유하는 바가 적지 않음에도 두 작품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전혀 상반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서로 다른 서술들이 그러한 결과를 빚은 셈이다. 고백체를 폐기한 염상섭은 새로 택한 서

11) 서영채, 앞의 책, 177면.

12) 같은 책, 186면.

술 방식으로 『제야』의 소재를 다시 써봄으로써 그 방식의 의의를 확인하는 한편 자신의 소설 창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선언하려 한 것이다.

경험 현실의 객관적 재현은 사실주의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바인데 『해바라기』는 그 요구에 충실히 응하고자 한다. 있는 그대로 재현된 사실은 고백체의 주관화된 사실과 다르다. 도입부에 제시된 결혼식 피로연의 장면이 그러한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피로연의 칠팔분이나 어우러져 들어가서 둘째 번으로 일본 사람편의 축사가 끝이 나려 할 때, 누구인지 ‘프록코트’짜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더니 신랑의 귀에다 입을 대고 소곤소곤하는 사람이 있었다. 신랑은 채 다 듣지도 않고 귀를 떼며 매우 난처하다는 듯이 잠깐 멀건이 앉았다가 고개를 숙이며 신부의 옆구리를 꼭 지르고 몇 마디 중얼중얼하니, 신부도 역시 눈살을 잠깐 찌푸리는 듯하더니,

“아무려나...”라고 겨우 들리게 대답을 하였다.

신랑은 인제야 확신이 잇는 낯빛으로 대답을 기다리는 ‘프록코트’짜리를 치어다보며,

“그럼 얼른 분별을 시키렴.” 하며 주의를 시켜 내보냈다.¹³⁾

염상섭의 소설에서 장면으로 도입부를 이룬 경우는 『해바라기』가 처음이다.¹⁴⁾ 그전에는 주인공의 정서와 사념에 대한 서술이 도입부를 채웠다. 『만세전』도 이인화가 귀국하게 된 사정을 회상조로 서술하면서 시작한다. 그에 비해 인용문은 사실이 지각되는 대로 재현한

13) 염상섭, 『해바라기』, 『염상섭전집 9』, 민음사, 1987, 109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철자와 띄어쓰기를 현대식 표기로 바꾸어 인용하기로 한다. 이하 같은 전집에서 인용할 경우 “『작품명』, 『전집 권수』, 인용 쪽”으로 표기한다.

14) 『암야』는 그의 모친이 하는 “오늘은 부디...”라는 말로 시작되지만 그 말은 장면에서 현존하는 상태로 재현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의식에서 환기된 것이다. 따라서 그 대화도 주관적 의식의 부분을 이룬다고 봐야 한다.

다. 결혼식 피로연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즈음에 누군가 나타나 신랑에게 말을 건다. 보이는 대로 쓰기에 그 ‘누구’는 ‘프록코트’ 차림으로 언급되며 그가 신랑의 귀에다 하는 말은 들리지 않기에 ‘소곤소곤’으로 표현된다. 프록코트 차림의 사내에게 말을 들은 후 신랑과 신부가 나타내는 반응도 보이고 들리는 만큼 묘사된다. 지각의 초점을 작중에 설정하고 시각과 청각을 현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장면이 생생하게 재현된다. 물론 『해바라기』의 본문 전체가 인용문처럼 묘사와 대화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서사가 진행되자면 사실 관계의 정보들이 필요한데 인용문 이후에 나오는 “다만 피로연이 과한 뒤에 시아버지에게 폐백을 드리자는 의논이었다.”¹⁵⁾가 거기에 해당한다. 서사의 진행에 필수적인 정보 없이 장면만으로 소설 쓰기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장면을 보충하여 사건의 실감을 증대시킨다. 『해바라기』에서도 정보는 그러한 목표에 복무하기 위해 제공된다.

초기 삼부작에서 사실의 세계는 주관화되는 탓에 해상도가 떨어지는 화면처럼 불분명하다. 영어 대문자로 표기된 인물들의 정체가 모호하고 경물들은 서술자의 정서로 물든다. 『해바라기』가 보여주는 사실의 세계는 그보다 선명하다. 최영희와 이순택은 물론이려니와 이순택의 시부모에서 목포 여관의 하녀나 H군의 서기에 이르기까지 작중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인다. 작중의 역할이 적은 부차적 인물들도 소홀히 처리되지 않는다. 최영희의 시부모와 시누이, 시댁 친지들이 저마다 의견을 내고 주장을 펼침으로써 예식에서 폐백에 이르는 장면은 활기가 넘치고 그 장면의 주된 문체가 실감을 획득한다. 최영희와 이순택이 신혼여행 중에 하는 대화는 그들 사이에 조성되는 미묘한 긴장을 섬세하게 재현한다. 결혼식 피로연장에서 홍수삼의 추모제를 마치는 시점까지 서술자는 서사의

15) 같은 곳.

실감에 필요한 구체적 세목들을 빠짐없이 언급하려 한다.

장면을 감각적으로 재현하고 관련된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서술 행위의 배후에는 사실에 충실하려는 염상섭의 작의가 자리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소재로 삼았다. 나혜석이 신혼여행으로 죽은 애인의 무덤을 찾아가 비석을 세워주었다고 한다. 염상섭은 『해바라기』에서 그 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 했기에 구성상의 필연성이나 인과성을 위해 사실을 조정하거나 변형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바라기』는 구성상 미흡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¹⁶⁾ 사실을 훼손하여 구성상의 완결을 이루기보다 불완전한 구성을 감수하면서 사실에 충실하려는 선택이 부른 평가였다. 나혜석의 신혼여행 일화가 다소 기이하고 엉뚱해 보여도 실제 사실이기 에 소설에 그대로 옮겨와야 한다고 염상섭은 판단했을 법하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만으로도 작품의 사실성은 확보된다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에 관한 염상섭의 생각은 김동인의 그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김동인은 신의 경지에 버금가는 솜씨로 창조된 작품은 비록 그 규모는 작아도 신이 창조한 세계를 닮은 것이며 그런 만큼 사실적이 된다고 생각했다. 염상섭에게 사실이 재현의 대상이라면 김동인에게 사실은 창조의 결과물이다. 사실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김동인을 창작 기법에 경도되게 했고 염상섭을 당대 현실의 관찰자가 되게 했다.

『만세전』이 초기 삼부작에 닿아 있다면 『해바라기』는 그로부터 완전히 결별한 상태이다. 『해바라기』의 종결부에서 최영희가 벌이는

16) 이와 관련하여 김경수의 언급을 인용한다. “이 작품(『해바라기』-인용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대체로 이 작품이 자체로 구성상 미완결성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여성 인물의 성격 창조에서도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김동인이 최초로 그러한 구성상의 허점을 지적한 이후로 이러한 평가는 줄곧 지속되고 있다.” 김경수, 『염상섭과 현대소설의 형성』, 앞의 책, 53-54면.

제의는 염상섭의 소설 창작이 접어든 새로운 단계를 선언하는 의미로도 읽힌다.¹⁷⁾ 홍수삼과의 추억이 서린 물건들을 땅에 매장하고 현실 쪽으로 돌아서는 최영희의 모습에 초기 삼부작과 결별하고 사실의 세계를 향하는 염상섭의 모습이 겹친다. 최영희가 “성년식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¹⁸⁾면 그 성년식에는 소설가로서 성숙한 염상섭의 면모가 내포된다. 홍수삼에 대한 최영희의 순수한 사랑은 이기적인 욕망들의 전쟁터인 현실에서 용납될 수 없기에 매장되어야 한다. 그녀는 가면을 쓰고 자기 잇속을 챙기면서 살아갈 다짐을 한다. 염상섭도 주관적 내면에 대한 관심을 철회하고 현실 세계를 소설에 담기로 한다. 그 세계에서는 계산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배반과 기만이 횡행한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 한 사랑의 언약이 내일의 배신으로 돌아오며 순수한 사랑이나 영원한 아름다움은 미숙한 청년의 어리석은 동경으로 치부된다. 그래서 루카치는 소설을 ‘성숙한 남성성의 형식’이라 하였다.¹⁹⁾ 소설에 대한 염상섭의 인식이 루카치 급에 다다랐음을 『해바라기』의 종결부는 표명한다. 어른이 된 염상섭에게 초기 삼부작은 문학청년의 순수한 열정을 품고 있어서 소중하지만 놓아 보내야 한다. 최영희가 흘리는 눈물이 염상섭 소설의 전개에서 지나는 의미가 그러하다. 냉혹하고 비정한 현실을 마주한 그의 소설 쓰기는 사실에 충실하려는 자세로부터 시작한다.

사실에 충실하려는 자세는 『해바라기』 이후 염상섭의 소설 쓰기

17) 조동일은 최영희에게서 염상섭의 모습을 읽어냈다. 이동하는 조동일의 그러한 이해를 부연하여 “최영희와 염상섭 자신이 비슷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자의식이 작용하였는지도 모를 일이다.”고 추정하였다. 그러한 추정은 염상섭 소설의 전개 과정이 전제될 때 설득력을 획득한다. 조동일, 앞의 책, 139면: 이동하 『한국 예술가소설의 성격과 전개양상-해방 전의 작품을 대상으로』, 『현대소설연구』 1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38면.

18) 서영채, 앞의 책, 184면.

19) 게오르크 루카치, 『소설의 이론』, 김경식 역, 문예출판사, 2007, 81면.

에서 원칙처럼 견지된다. 다른 무엇도 사실에 우선할 수 없고 사실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검사국 대합실』과 『윤전기』에서 서술은 사실을 재현하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 전자의 공간적 배경이 식민지의 사법 기관이고 후자가 노동자의 파업을 다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식민지 현실을 비판하는 주제로 서술이 진행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염상섭은 보고 들은 사실을 전하고 그 사실을 근거로 추론하는 정도로 서술을 제한할 뿐 주제를 위해 사실을 변형하여 재조립하는 식으로 서술을 진행하지 않는다. 『검사국 대합실』의 서술자는 대합실 안팎의 풍경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전한다. 이경옥이 서술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그녀의 거동이 비교적 자세히 언급된다. 검사국이 박해의 현장으로 의미화 되거나 검사가 악인으로 설정되거나 하지 않는다. 검사국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하고 검사는 사무적일 뿐이다. 『윤전기』에서 인쇄공들은 임금 체불 때문에 파업을 한다. 신문 발행이 “민족과 사회에 대한 의무”²⁰⁾라는 대의는 그들에게 아무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서 그들의 언행이 사나워질 뿐이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임금 지급이 가능해지자 직공들의 태도는 금세 부드러워지고 인쇄기계가 가동된다. 사실에 충실한 서술의 기조는 『전화』에서도 유지된다. 이주사가 집에 전화를 설치하고서 벌어지는 일화들이 객관 서술을 통해 상세하게 그려진다. 특정한 윤리적 주장이 문면에서 제기되지 않는다.

『검사국 대합실』과 『윤전기』, 『전화』에서 파악되는 바와 같이 『해바라기』 이후 염상섭의 소설에는 현대의 모든 고뇌를 응축한 ‘북국의 철인’도, 진정한 예술을 ‘생사의 문제’로 여기는 ‘진리의 탐구자’도, 목숨을 걸고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여성주의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 기자, 회사원, 직공, 기생, 주부, 교사, 학생 등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들을 통해 세상의 이런

20) 『윤전기』, 『전집 9』, 228면.

저런 면모들이 펼쳐진다. 여학생이 시골 청년의 순정을 이용해 그로부터 거금을 사취하고, 형편이 여유로운 유부남들은 기생과 희롱하는 일을 일상의 즐거움으로 삼는다. 사내들은 기생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기생은 그 경쟁에 편승해 더 큰 수익을 얻으려 한다. 생존을 위한 대결은 한 치의 양보 없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계약과 거래는 사기로 끝난다. 그러한 면모들을 통해 돈이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가치로 군림하는 세대가 드러난다. 금전 획득이 목적으로 전제되자 사랑은 거래의 수단이 되고 계산이 진심을 대신하며 순정은 배반당해 어리석음으로 전락한다. 그 비정하고 냉혹한 어른들의 세계가 염상섭의 소설에서 재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4. 논설적 서술

감각기관으로 지각되는 사실을 서술하는 것만으로는 삶과 세상의 모습이 온전히 재현되지 않는다. 인간의 정신을 배제한 소설 쓰기는 성립되지 않는다. 정신에서 벌어지는 감정과 사고의 활동이 현실에서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 인간들 간의 관계에 작용한다. 그러한 정신의 활동이 소설에서 서술되어야 한다. 『해바라기』도 사실의 서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사의 진행에 필요한 정도에서 최영희의 심리가 서술된다. 작중인물의 성격은 사건의 실감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그런데 성격은 감각적 묘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서술자에 의해 직접 소개되거나 장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암시된다. 『해바라기』에서 최영희의 성격은 전자의 방식으로 소개된다.

이지적 자기 비판력과 명민한 자기 반성력을 가진 영희에게

대하야 사상과 실행 사이에 틈이 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가 믿는 바의 사상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요 일종의 고통이었다. 그러면 어느 때든지 자기의 사상대로 용감하게 실행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하였다. 이것이 이 여자에게는 무엇보다도 괴로운 일이지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는 수 없이 다른 이치를 끌어 대어서 변명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다. 자기를 변명하는 그것도 역시 마음에 편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아니하면 안심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여자의 병이다. 이러한 것은 피가 팔하고 성벽이 많으며 자신이 많으면서도, 비상히 신경질로 생긴 사람에게 보통 있는 일이지만, 영희도 말하자면 그런 종류의 여자이다.²¹⁾

최영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합리적인 추론과 분석에 의해 서술된다. 그러한 서술이 있어서 예식과 폐백의 문제를 두고 그녀가 시택과 벌이는 갈등이 어색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최영희 자신이 서술주체가 되어 주관적인 정념을 토로한다면 「해바라기」는 현 상태와 같은 객관성은 획득되기 어렵다. 고백체도 정신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은 서술하지만 주관에 편중되기에 사실주의와 배치된다. 정신의 활동이 객관적으로 서술되어야 사실성이 획득된다.

정신활동의 객관적 서술은, 사실에 충실한 서술과 더불어 염상섭의 사실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을 이룬다. 감각의 대상이 아닌 정신활동을 객관적으로 재현하려면 서술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최영희의 심리를 분석하고 추론하는 서술도 거기에 해당한다. 합리적인 과정 없이 정서와 사유가 서술된다면 그 서술은 강변이나 토로로 흐르고 그런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 염상섭의 소설에서 사실 재현을 제외한 서술이 논설의 양상을 띠는 것은 주제의 객관적 형상화와 관련된다. 분석과 추론, 논증, 설득, 토론 등과 같은 논설

21) 「해바라기, 『전집 1』, 115-116면.

적 절차를 통해 의미가 지어지고 주제가 귀결된다. 『제야』에서 최정인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과정도 그 한 사례이다. 그러나 고백체가 지닌 기본적 속성으로 인해 그녀의 주장이 객관성을 획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물의 정신활동이 서술자에 의해 대상화 되거나 복수의 인물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토론을 펼친다면 그러한 경우들은 인물 자신이 서술 주체가 되는 경우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염상섭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의미를 짓고 주제를 구성한다. 그러한 방법과 관련하여 『E선생』은 『제야』보다 진전된 양상을 보인다.

『E선생』의 서사는 두 개의 주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가 배추밭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졸업시험 폐지 요청 사건이다. E선생은 꾸밈없고 너그려워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체조교사를 비롯한 일부 동료교사들이 그 인기를 시기하여 E선생을 조롱하고 따돌린다. 체조선생의 무례한 언동을 E선생이 아랑곳하지 않아서 둘 사이에서 충돌이 벌어지지 않는다. 둘 사이의 갈등은 학교 운동장에 연해 있는 배추밭을 두고 표면화된다. 학교 측에서는 배추밭을 매입하여 운동장을 넓히고 싶지만 그 밭의 주인은 학교 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 체조선생은 운동부 학생들을 시켜 배추밭을 짓밟게 함으로써 배추밭 주인을 압박한다. E선생은 체조선생의 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체조선생은 학교를 떠나게 된다. 그 후 E선생과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대립이 『E선생』의 후반부 서사를 이루는 주된 사건이다. 상급반 학생들은 시험에 관한 E선생의 지론을 핑계로 삼아 졸업시험 폐지를 요청한다. 그 요청이 거부되자 학생들은 집단 등교거부로 맞선다. 체조선생이 배후에서 운동부 학생들을 선동함으로써 빚어진 사태였다. 학감인 E선생은 그 사태의 주동자들을 징계한 후 사직한다.

『E선생』의 서사를 이루는 주요 사건의 중심에는 E선생의 가치관

이 자리한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E선생의 가치관이 체조선생과 운동부 학생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차례로 충돌하면서 사건들이 빚어진다. 체조선생은 학교에 기여하여 출세해 보려는 속된 취지에서 운동부 학생들을 시켜 배추밭을 망쳐놓고 학생들은 E선생의 훈화를 왜곡하여 편의를 도모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장면과 사실 정보들을 통해 재현되는 사건들의 저변에는 서로 다른 가치관들 간의 충돌이라는 의미의 문제가 가로놓인다. 그 의미가 객관적으로 형성되어야 사건의 사실성도 보장받을 수 있다. E선생의 가치관에 대한 서술이 본문의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그러한 의미형성과 관련된다. 운동부원들이 공을 줍는다는 핑계로 배추밭을 유린한 사건에 대해 E선생은 기도시간에 학생들에게 훈화를 한다. 그의 훈화는 십계명 중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을 하지 말라”를 낭독한 후 시작된다. 그는 그 계명을 모든 생명체에 적용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함으로써 살생을 경계하는 불가의 가르침과 동일시한다. 생존에 필요한 영양을 취할 목적 외에 인간에게는 그 어떤 생명도 해할 권리가 없으며 자연에 충만한 생명 중 그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한 견지에서 그는 배추밭을 유린한 당사자들에게 ‘도덕적 양심의 자각’을 촉구한다.

살인을 금하는 보편적 도덕률을 전제로 생명의 가치를 주장하는 E선생의 논의는 예상되는 반론도 거론하면서 대체로 타당하게 전개된다. 논리적 비약이나 단정적 강변이 없지 않으나 그 정도의 하자는 무시해도 될 만큼 생명과 윤리에 관한 그의 가치관은 보편적이다. 그러한 가치관이 객관적으로 서술된 탓에 체조선생이 면직처리되기까지 E선생이 한 행동이 설득력을 획득한다. E선생은 사심이 아닌 진심에서 체조선생의 비행을 묵과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E선생이 진심을 담아 펼친 논설은 그 내용에 합당한 정도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 지리 선생이 E선생의 훈화에 대해 “대응변가야! 대응

변가야!”라고 빈정거리고 운동부원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작중 현실에서 E선생의 주장은 한 개인의 몫으로 축소되어 상대화된다. 학생들의 졸업시험 폐지 요청 사건의 경과를 보편성을 지닌 주장이 상대화되는 과정을 배추밭 유린 사건보다 잘 보여준다. 시험 중에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현장을 적발한 E선생은 크게 분노한다. 그와 함께 시험에 관한 그의 사유가 본문에 서술된다.

오늘날의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나 그렇지 않으면 기계에게 사역할 노예를 만들었다. …(중략)… 오늘날의 교육은 시험을 위하여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시험의 점수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수입의 다과를 의미하고 그 여자의 혼처를 선택할 권리를 주게 하기 때문이다. 함으로 오늘날 학생의 공부는 학문을 위함이 아니라 시험점수를 위함이다. 이와 같이 점수를 얻는 다는 것이 최후의 목적이니까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을 실행하느라고 별별 비루한 짓을 한다.²²⁾

E선생은 위에 인용된 생각을 한 시간에 걸쳐 학생들에게 설명한 후 시험의 존재 여부를 묻는 작문 숙제를 낸다. 그는 학생들이 숙제를 하면서 시험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졸업시험을 치르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다. 그 청원의 취지는 E선생의 높은 뜻을 받들어 따르는 데 있다고 한다. E선생이 자신들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E선생의 가르침을 거론하면서 수업거부에 나선다. 시험의 폐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라는 것이다. E선생은 학생들의 주장을 논박하지 못하고 “이것이 너희들이 사년 동안 배운 것이란 말이나?”고 고함을 지르며 분노할 뿐이

22) 『E선생』, 『전집 9』, 145면.

다. 사무실에 돌아와서도 그는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출학, 출학”이라고 외친다. 이 작품의 도입부에서 E선생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인물로 소개되었다. 학생들이나 동료 교사들로부터 무례한 말을 들어도 그는 빙그레 웃거나 무시하고 넘어갔다. 그런 그가 자제력을 잃은 것은 자신의 가치관에 가해진 타격에 논리적으로 반격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E선생의 주장과 행동 사이에 나타난 균열을 찾아 그곳을 공략한 것이다. 논리로 학생들을 제압하는 데 실패한 E선생은 학감으로서 권력을 휘두른다. 학교 측에서 주도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자 학생들은 집단 등교거부로 맞선다. 논리의 대결이 힘 대결로 전환되고 그렇게 되자 E선생이 교육자로서 지닌 철학이나 사명감은 개인의 몫으로 축소되어 상대화된다. E선생의 가치관은 그의 사유나 훈화에서는 보편성을 획득하지만 타자들의 주장이 제기되자 상대화된다. 타자들과 비교될 때 E선생은 한 사람의 원칙론자일 뿐이다. 현실에는 E선생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조선생이나 운동부 학생들 같은 부류도 있다.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시류를 따르고 실리를 추구하는 것을 더 보편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그들의 세속적 욕망 앞에서 E선생의 가치관은 상대화되고 작품에서 의미의 주도권을 상실한다. 그의 가치관이 보편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체조선생과 운동부 학생들을 감화시키지 못한다. E선생의 면직은 그의 가치관이 현실적으로 좌절되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루카치의 말대로 본질이 부재한 세계에서 진정한 가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²³⁾ 그 불가능성이 E선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재현된다.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²⁴⁾에서도 작중인물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대한 논설적 서술이 사건들의 의미 형성에 이바지한다. 이

23) 게오르크 루카치, 앞의 책, 39-40면, 89면 참조.

24) 이하 「너희들」로 표기함.

작품은 복잡하게 뒤얽힌 작중인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 당대 젊은이들의 연애 풍속을 다룬다. 거의 모든 작중인물들이 삼각의 애정구도를 형성할 뿐 아니라 그 관계들이 서로 연결되기도 한다. 대략 이런 식이다. 덕순은 응화의 처인데 명수에게 애정을 표하고 일본에 건너간 뒤에는 경애와 한규 사이에 끼어 삼각관계를 이룬다. 서로 연인 사이였던 한규와 경애는 덕순 때문에 헤어진다. 희숙과 혼담이 깨진 후 명수는 도홍에게 공을 들이는 한편 마리아에게 구애를 받기도 한다. 도홍은 중환을 좋아하지만 중환은 도홍을 명수와 맺어주려 한다. 고향 청년의 연애편지에 마음이 끌리던 마리아는 석태와 사귀고 이어서 명수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인물들은 이처럼 복잡한 애정의 구도에서 저마다 진심을 주장하는가 하면 서로 간의 비판이나 사실 확인에 의해 그들의 허위가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인물의 주장은 논설의 형태로 전개되고 인물들 사이에 벌어지는 대화는 토론이나 논쟁처럼 진행된다.

『너희들』에서 덕순은 지인들을 집에 초대하여 연회를 여는데 그 연회가 회의의 양상을 띤다. 인물들 사이에서는 사적인 대화보다 일종의 토론이 벌어진다. 그 첫째 주제는 '목회자의 도덕성과 현대의 종교'이고 중환이 일종의 주제 발표를 한다. 중환은 사례를 들어 목회자의 위선을 꼬집고 이어서 종교의 현대적 의의에 대해 장황한 논설을 전개한다. 종교가 구태를 벗고 개조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는 중환의 주장에 대해 명수는 종교혁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공감 을 표한다. 회의의 두 번째 주제는 여성의 해방이다. 덕순이 잡지에 게재하려는 글에 대해 응화가 반대하면서 둘이 논쟁한다. 일본의 여성문인 B여사가 사랑을 좇아 백만장자인 남편에게 이혼장을 던지고 떠난 일을 두고 덕순이 B의 행동을 찬양하는 서간체의 글을 발표하려 하자 응화는 간통은 용납될 수 없다고 한다. B여사의 사건은 명수와 중환과 흥진 사이의 토론으로 비화되면서 성의 혁명이 회의의

셋째 주제로 상정된다. B여사가 지은 시에 대해 명수와 중환이 논평을 하고 이어서 흥진은 일본이 성적 혁명기에 접어들고 있는 중이라서 B여사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흥진이 조선에도 진정한 성적 혁명의 시대가 오리라고 예견하자 명수는 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흥진은 성적 타락을 막으려면 교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토론을 마친다. B여사 사건으로 촉발된 토론은 『너희들』의 주제와 관련한 의미 효과를 지닌다. 응화는 덕순이 B여사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의심하는 터이다. 사랑과 돈 사이에서의 선택은 좌중의 다른 인물들도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 문제는 덕순의 집 연회 이후에도 계속 거론된다. 중환과 명수가 술자리나 산책길에서 나누는 대화에서는 신성한 연애가 찬양되고 돈과 거래되는 사랑이 비판된다. 인물들 간에 벌어지는 독서토론도 작품의 의미 형성에 기여한다.²⁵⁾ 한규와 경애는 오스카와일드의 소설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읽어낸다. 그들은 문학작품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한다. 마리아와 명수도 어떤 소설의 내용을 두고 토론한다. 여주인공이 약혼자를 버리고 폐병환자를 선택한 동기에 대해 마리아가 묻자 명수는 그것이 모든 것을 초월한 절대적 사랑이라고 대답한다. 그 질문과 대답은 단순히 소설의 내용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들은 소설을 매개로 저마다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을 명수가 받아줄 수 있는지 물었고 명수는 마리아가 석태와 사귀는 일을 비난한 것이다. 마리아는 석태의 재력에 끌려 그와 결혼하려 하였다.

『제야』와 『만세전』에서 편지는 인물의 정서와 사유를 서술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너희들』에서도 같은 용도로 쓰인다. 마리아의

25) 『너희들』에서 한규와 경애가, 그리고 마리아와 명수가 펼치는 독서토론의 작품 내적 의미와 효과에 대해 김경수가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김경수, 『염상섭의 독서체험과 초기소설의 구조-『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론』, 앞의 글, 76-79면.

첫 남자는 그녀가 기차에서 만난 동향 출신의 청년이다. 마리아는 그의 연애편지들을 받게 읽으며 행복한 상상에 잠기곤 했으나 변심을 하고 석태와 사귈다. 청년은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서 실연의 고통을 토로하고 그녀의 행복을 축원하는가 하면 그녀를 비난하기도 한다. 마리아를 찬미하고 자신의 슬픔을 서술할 때 감정적이던 편지 화자의 어조는 석태가 서자이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할 때는 논리적으로 바뀐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마리아가 그런 석태와 결혼하는 것은 결코 참된 사랑이 아니며 그녀의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다. 명수와 독서토론을 한 다음날 마리아는 그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 편지에서 마리아는 전날의 토론을 다시 거론하면서 그 소설의 여주인공처럼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석태를 거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한 것이다. 상대에게 자신의 내밀한 처지를 고백하면서 향후의 방도를 일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구애의 의미를 지닌다. 명수는 마리아의 걱정적인 요청에 감동하기보다는 의문을 품는다. 명수는 타인이 마리아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은 죄악이며 마리아만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권리를 지닌다는 요지의 답신을 보낸다. 말하자면 명수는 마리아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친 것이다.

『너희들』에서 주제와 관련된 의미들은 주로 작중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형성된다. 한 인물이 펼치는 논설적인 장광설과 인물들 간에 벌어지는 토론을 통해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서술되고 그것들이 주제와 관련된 의미 형성에 참여한다. 편지는 서면을 매체로 삼은 논설적인 장광설의 한 형태이다. 인물들은 저마다 논리를 갖춰 진지하게 그들의 생각과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그 나름의 진실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그들이 구두로, 혹은 서면으로 표명한 생각과 주장은 그들의 행동과 심각하게 괴리된다. 한규는 독서토론을 통해 경

애와 진정한 사랑을 맹세하지만 도일 후에는 덕순의 애인이 됨으로써 경애를 배신한다. B여사의 용기에 감복한다던 덕순은 자신이 한 규를 유혹한 사실이 지인들 사이에 알려질까 전전긍긍하고 응화의 금전적 지원도 계속 받기 원한다. 마리아의 명수를 향한 사랑이 진심이 아니었음은 그녀가 명수에게 이별을 통고하는 편지를 보냄으로써 드러난다. 마리아는 석태와의 결혼을 피하려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명수가 필요했던 것이다. 명수는 자신과 혼담이 있던 희숙이 돈을 좇아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사랑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여성들에 대해 부정적이 된다. 그러나 명수 자신도 도홍과의 살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덕부상회에 취직하여 돈벌이를 한다. 중환은 작중의 여러 장면에서 사랑과 도덕에 관한 원론적인 논설을 장황하게 전개한다. 그의 원칙에 위배되는 세대는 가차 없이 비판되거나 조롱당한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뚜렷하게 말로 표명하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국외자나 방관자에 머문다. 그는 복잡하게 뒤엉킨 작중의 연애 관계에서 비껴나 있다. 그는 도홍의 적극적인 구애를 외면할 뿐 아니라 그녀를 명수와 맺어주기까지 한다. 것처럼 「너희들」의 인물들은 말한 바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속이며 배반한다. 타인은 물론이려니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한 행동을 범한다.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는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 한계이다. 인간이 언제나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염상섭은 그러한 자기모순과 이율배반에 주목함으로써 성과 사랑과 관련한 당대 젊은이들의 풍속을 생생하게 재현해낸다.

5. 결론

『E선생』에서 E선생이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토덕적 양심을 촉구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다. 더욱이 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개된다. 『너희들』의 주요 작중인물들은 진정한 사랑이 세속적인 이해타산을 초월한다는 데에 대해 이견이 없다. 그들은 토론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강조한다. 생명의 소중함이나 진정한 사랑은 그 자체로서 본질적인 의의를 지니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들 각각이 『E선생』과 『너희들』의 주제는 아니다. 논리적으로 서술된 본질적인 의미들이 작중의 의미를 주도하지 못하는 것은 재현적 서술 때문이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재현될수록 그 가치들은 상대화된다.

초기 삼부작 이후 형성된 염상섭의 사실주의적 서술은 사실과 의미에 걸쳐 객관성을 추구했다. 사실은 충실하게 재현되었고 의미는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다. 사실과 의미 중에서는 전자가 중시되었다. 그 어떤 신념이나 가치도 사실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가 사실주의자로서 취한 입장이었다. 그 입장에서는 모종의 의미를 위해 사실을 조종하거나 변형하는 작용은 용납되지 않았다. 논설적인 서술로 형성된 의미가 그 자체로 타당성이나 보편성을 지니더라도 대개의 경우 작중 현실에서 상대화되었다. 루카치는 본질이 부재한 세계에서 주인공이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다. 염상섭이 『만세전』 이후 소설에서 재현한 현실이 바로 그러하다. 그 현실에서 본질적인 가치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들에 의해 왜곡되거나 세속적으로 이용된다. 그로써 그 가치의 당대적 위상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본질적인 가치를 유보할 만큼 염상섭은 사실 앞에서 겸허하려 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이광수나 카프 계열의 작가들과 구별된다. 이광수는 계몽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성자 급의 인물과 이상세계를 창조했다. 카프 계열의 작가들은 계급의식을 구현할 목적으로 현실을 재구성했다. 그 결과 양자 모두 현실의 객관적 재현에서 벗어나

저마다 주관적으로 소망하는 현실로 진행했다. 그러나 염상섭은 본질적인 이념이나 윤리가 현실에서 상대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현실을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현실을 충실히 재현하고자 한 탓에 그는 정치적이거나 도덕적으로 특정 입장을 고수할 수 없었다. 그의 정치적 입장이 선명하게 규정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염상섭, 『염상섭전집1, 9』, 민음사, 1987.

2. 논문과 저서

강현국, 「개념의 서사화-염상섭의 초기소설」,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2006.9, 407-430면.

김경수, 「근대의 독서체험과 초기소설의 구조-「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7.8, 67-88면.

_____, 『염상섭과 현대소설의 형성』, 일조각, 2008.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김지영, 「‘연애’의 형성과 초기 근대소설」, 『현대소설연구』 27, 2005.9. 51-82면.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신종곤, 「염상섭 초기작에 나타난 자기반성적 서술형식 연구-「표본실의 청계고리」, 「암야」, 「제야」, 「만세전」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7, 상허학회, 2001.8, 231-258면.

유양선, 「근대지향성의 문제와 현실뒤집기의 수법」, 권영민 편, 『염상섭문학연구』, 민음사, 1987,

이덕화, 「염상섭의 향기로운 추억의 여인, 나혜석」, 『나혜석연구』 7, 나혜석학회, 2015.12, 70-94면.

이동하 「한국 예술가소설의 성격과 전개양상-해방 전의 작품을 대상으로」, 『현대소설연구』 1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12, 9-44면.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림기획, 2001.

장두영, 「염상섭의 모델소설 창작방법 연구-「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4, 한국현대문학회, 2011.8. 127-158면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제 2판, 지식산업사, 1989.



3. 번역서

게오르크 루카치, 『소설의 이론』, 김경식 역, 문예출판사, 2007

<Abstract>

A study on Yeom Sang-sup's realistic writing style

Kang, Hun-Kook

In his 'early trilogy', Yeom sang-sup practiced confession style by expressing the subjective feelings of the textual self. However, his novel attention has shifted towards objectivity since *Manseijeon*. In the preceding study, the changes between the early trilogy and *Manseijeon* were defined as either a break or a fault. This paper noted the point and discussed that the change realized the potentialities that were implicit in his early trilogy.

Yeom Sang-sup's realistic writing style which was made after his early trilogy sought objectivity across facts and meanings. Facts were faithfully reproduced and meaning was logically developed. Between fact and meaning, the former was valued. It was his tenacious attitude as a realist that no faith or value takes precedence over facts. Manipulation or transformation of facts for some purpose was not acceptable to him. Although the meaning formed by a narrative description was universal in itself, in most cases, it was relativized in the reality of text. In his view, the objective reality was cold-hearted and harsh, to the extent that it was impossible to realize universal value or ethics.

Yeom Sang-seop tried to humble himself before the fact enough to



retain the essential value. He was unable to stick to a particular position politically because he wanted to faithfully reproduce the multifaceted and multi-layered reality. That is why his political position is not clearly defined.

Key words: confession style, early trilogy, *Manseijeon*, narrative description, realist, Yeom sang-sup

투 고 일 : 2019년 2월 8일 심 사 일 : 2019년 2월 25일-3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9년 3월 13일 수정마감일 : 2019년 3월 25일